

#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1993. 12

金 聖 哲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要 約

본 연구는 주체사상의 理論的 變化過程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1980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부각된 이후 그가 제기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와 그에 의한 이론적 전개를 사회정치적인 변화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사회주의체제들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체계의 긴장과 갈등이 북한의 경우에 어떻게 비교 또는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건설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상정하는 공산주의에 이르기 위한 수단적 이념으로서 實踐 理念(혹은 전이 문화)을 제시하게 되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이 이념체계와 관련하여 엘리트 葛藤이 있게 된다. 실천 이념 특히 발전전략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권력투쟁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한 정책논쟁만도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직전 전개된 부하린과 스탈린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균형적인 발전전략과 중공업 우선전략 사이의 논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등소평과 유소기의 실각은 그 이전 몇 해 동안 진행된 이들과 모택동 간의 사회주의체제 발전전략에 대한 이견을 중심으로 발전한 갈등의 결과였다.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대립은 성장 배경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전략을 달리하는 집단 사이의 논쟁으로서 무엇보다도 당내 권력투쟁과 相互作用한다. 그 이유는 당이 핵심적 결정기관으로서 여기에서의 지위를 확고히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전략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되며 자연히 권력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천 이념인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갈등은 최고 지도자가 물리적으로 퇴장하는 경우 再現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北韓의 경우 엘리트 갈등과 상호작용하는 實踐 理念에 있어서의 緊張은 비교적 일찌기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갈등이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자력갱생에 기반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김일성의 발전전략이 아무런 저항없이 실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 차례의 엘리트 갈등을 거치면서 김일성의 唯一的 支配體制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된 자주성의 4가지 원칙(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을 중심으로 하는 대내외적 전략으로서의 실천 이념에 緊張을 초래할만한 要因이 除去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주체사상이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이데올로기에 이르기 위한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을 둘러싼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의 발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엘리트 갈등이 종결됨에 따라 자신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를 발전시켜야 했다. 여기서 주체사상이 體制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체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정책적 과

정에 대한 정당화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이제는 권위관계구조 (structure of authority relations) 혹은 권위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현 지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발전전략 논쟁이 일단계 마무리되었던 1967년 경부터 김일성에 대한 수령 칭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1969년에는 수령에 대한 관점 즉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향도인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는 革命的 首領觀이 정리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유교문화적 전통에서의 가부장적 권위까지를 김일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정치 및 사회조직 모든 부문에서 절대적 지배자로 만들었다. 결국 주체사상은 1970년 黨의 唯一思想으로 표방되었으며 1974년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이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면서 김일성 혁명사상의 틀 안에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유일사상의 전파와 김정일의 권력기반 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주체사상은 거기에 포함된 복합적인 명제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金正日의 공식 등장과 함께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체계화 과정에서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繼承性を 주장하면서도 그것과의 差別性を 부각시키게 되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목표 이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정

당화하는 實踐 理念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북한 특유의 權威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차별성은 창조성이라는 표현으로 합리화되어 오다가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대변혁 후인 1992년에 이르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령 중심의 권위관계를 합리화하는 것과 繼續革命論에서와 같이 그의 권력승계를 혁명의 세대교체로 묘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된 개념들인 自主性和 創造性에 意識性을 덧붙여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서술하는 特殊 概念의 普遍的 概念化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승성을 주장하면서도 그것과의 차별성에 비중이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은 輕工業革命論을 제기하고 資本主義體制에 대해 레닌주의적 해석에서 탈피한 評價를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결코 북한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관리 방식의 조정(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 및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추진)과 대서방 개방(합영법의 채택)을 실시하였으나 이것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극히 制限的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이 이를 증

명해 준다.

김정일은 1980년대 말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전후하여 극히 防禦的인 體制守護 論理로서 민족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고 타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기하였다. 朝鮮民族第一主義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민족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도구적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즉 김정일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사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과 소련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감소된 상황에서 민족이 사회주의체제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김정일은 또한 이것을 사회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논리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개념에 포장된 대남전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의 존속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體制固守와 社會統合의 논리인데, 주목할 것은 체제 붕괴의 원인으로 소위 ‘내부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권력 엘리트와 知識人의 이반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이 점차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점차 이탈하면서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주장 외에도 ‘민족’ 또는 ‘우리식’ 등의 개념에 비중을 두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그것의 展開 樣相(특히 대남전술의 측면에서)을 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체의 개혁·개방에 여념이 없고 구소련이 해체된 상태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제기되었던 자주성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를 주장



하게 할 만한 구실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1993년 4월 7일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한 것, 동년 10월 2일 「檀君陵 發掘 報告」를 통해 단군이 실재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 동년 12월 9일 제9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을 강조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김정일의 朝鮮民族第一主義라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북한의 위기의식을 민족사의 부각을 통해 보상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해 민족의 同一體 意識을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하나의 대남전술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주체사상은 앞으로도 민족 개념으로 포장된 修辭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機能的인 側面에서 주체사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환경 변화 즉 세대교체와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體制의 適應 能力을 대체로 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展望된다. 첫째, 주체사상은 더 이상 미래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제시해 주거나 이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이념으로서 속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신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위구조를 宗教的인 意味로 합리화시키고 김정일의 등장을 계시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非合理的 要素를 동원하는 것은 체제유지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체제의 변혁 특히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당 중심의 권력구조와 이념체계의 이완이라는 일반적인 必要 條件들이 있는데, 공식적 이념체계의 부분에서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이래 개방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사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타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념이 강조된 상태에서 추진될 경제정책은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消極的인 開放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교양에 있어서 기계적인 학습 방법에 따른 내면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주체사상에서 강조되는 신념화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주민들의 의례적인(ritual) 행동을 명분있는 것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수준에서 극히 消極的 意味의 社會結束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에 자신을 일체화시킴으로써 社會的 存在로서 인정받고 소외를 은폐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에서 전후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주체사상이 단독으로 북한체제의 존속과 해체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 중심 체제의 존속을 저해하는 변수로 작

용할 것이다.

#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理論的 背景: 社會主義體制的 理念體系 變化	3
第 III 章 主體思想의 發展過程	10
1. 主體 概念의 登場	11
2. 實踐 理念으로서의 論理 展開	16
가. 自主性 原則의 確立	16
나. 革命的 群衆路線의 展開	21
3. 構造의 正當化 理念으로의 變化	25
가. 唯一思想體系의 確立	25
나. 3大革命小組運動의 擴散	31
第 IV 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1): 思想的 體系化	36
1. 背景	37
2. 分野別 觀點	39
가. 人間中心의 世界觀	39

나. 繼續革命의 歷史觀·····	45
다.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의 首領·黨·大衆觀·····	49
第 V 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2):	
經濟體制에 對한 새로운 理解·····	57
1. 背景·····	57
2. 變化 內容·····	59
가. 輕工業革命論·····	59
나. 世界體制에 對한 認識變化·····	62
第 VI 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3):	
社會主義 變革에 對한 對應·····	69
1. 背景·····	69
2. 變化 內容·····	71
가. 朝鮮民族第一主義: 民族 概念의 北韓式 適用·····	71
나. 우리식 사회주의: 體制 固守論·····	78
第 VII 章 結論 및 展望·····	86
參考文獻·····	93

## 第 I 章 序 論

오늘날의 主體思想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過程 및 構造를 정당화시켜주는 理念體系이다. 주체사상은 사상가나 철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체계적인 사회개혁의 이론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金日成이라는 한 정치가가 1955년 이래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화와 새로운 체제건설에 대한 의견 또는 신념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添加 혹은 부가시키고 후계자로 지목된 金正日이 複合的인 命題들을 정리·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주체사상은 최근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제시된 4가지의 自主性 原則이나 革命的 群衆路線들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中·蘇紛爭과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와중에서 대외적인 자주성의 확보와 대내적인 동원을 위해 제시되었던 政策 大綱이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에 따른 우상화 및 김정일의 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金日成主義化를 선언하고 3大革命小組運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1982년 이후 金正日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體系化되고 심화되었으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體制構造(regime structure)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체제이념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주체사상은 김

정일의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변화 및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포함하면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낙후성을 부각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종래의 어떤 주의나 사상보다도 우월한 이념체계임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理論的 變化를 거치는 사이 북한이 애초에 제기하였던 事大에 반대하고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에 대한 주장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체제의 변화로 굳이 주체를 침해할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目的은 주체사상의 이러한 理論的 變化過程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1980년 金正日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부각된 이후 그가 제기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와 그에 의한 이론적 전개를 社會政治的인 變化와의 相關關係 속에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第 II 章 理論的背景：社會主義體制的 理念體系 變化

어떤 체제이든지 그 체제를 나름대로 正當化하는 理念體系, 즉 정당화의 가치(legitimizing values) 혹은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서구 民主主義體制는 기본적으로 자연법 사상에서 도출된 인간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적 합리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권위주의체제와 당·국가 지배구도를 유지하는 기존 또는 현존 사회주의체제는 근대화과 국가 안전,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社會主義體制와 權威主義體制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권력 엘리트에 의해서 제시된다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체제에서의 정당화는 엘리트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일치(congruence)를 통해 정당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여 대중을 설득 또는 강요하는 자기 정당화(self-legitimation) 혹은 위로부터의 정당화(top-down-legitimation)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은 그 내용에 있어서 권위주의체제의 그것과 구별되는 만큼 체제 정당화의 방식에 있어서 差異點도 있다. 대체로 권위주의체제 이념의 기본 아이디어들은 그 구조가 복잡다단하지 않고 그것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 침투하여 어떤 역사적인 시점마다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변용되는 動的인 性格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는 대중을 탈정치화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체제에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1)</sup> 반면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은 動員的 性格을 띤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소련이나 중국처럼 자체의 혁명을 경험했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물론이고 타의에 의해 사회주의가 이식된 체제에서조차도 엘리트들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이념은 상당한 대중을 매료시켰으며, 더욱이 이런 이념으로 무장한 적극분자들은 체제건설 과정에서 추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는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당관료들뿐만 아니라 지식인, 농민들을 활성화시키고 政治化시켰다. 즉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은 사회세력의 동원을 유도하는데 유효하였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기존체제 즉 봉건체제에서의 소외계급의 불만을 적절히 해소해 주는 명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가 제시하는 이념체계는 계급없는 이상사회인 공산주의라는 목표 이데올로기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실천 강령들을 담은 實踐 이데올로기(理念) 혹은 轉移文化<sup>2)</sup>의 속성을 가지

1)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Macropolitical Theory*, vol. 3 of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2) 이 개념들은 Franz Schurman이 사용한 것으로서 후에 Chalmers

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는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실천 이념의 政策大綱 특히 發展戰略과 관련하여 엘리트간에 葛藤이 있게 된다. 발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권력투쟁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한 정책논쟁만도 아니다. 이 둘은 서로 相互作用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직전 전개된 부하린과 스탈린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균형적인 발전전략과 중공업 우선전략 사이의 논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등소평과 유소기의 실각은 그 이전 몇 해 동안 진행된 이들과 모택동과의 사회주의체제 發展戰略에 대한 異見을 중심으로 발전한 갈등의 결과였다. 이러한 대립은 성장 배경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전략을 달리하는 집단 사이의 논쟁으로서 무엇보다도 黨內 權力鬭爭과 상호작용한다. 그 이유는 당이 핵심적 결정기관으로서 여기에서의 지위를 확고히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전략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되며 자연스럽게 권력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당은 유일적 지배구조로서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편 외부의 여타 기관이나 집단들로부터의 요구투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을 둘러싼

---

Johnson에 의해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엘리트 葛藤의 場이 되고 만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천 이념의 정책 대강인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갈등은 최고 지도자가 물리적으로 퇴장하는 경우 再現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소련의 경우 스탈린의 사망 그리고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의 사망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는 새로운 리더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략을 달리하는 엘리트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혁지향적인 지도자인 고르바초프는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자유화라는 방법을 통해 리가초프 등 보수파의 진영을 공략하였다.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 기간 말기 江靑을 위시한 4人幫의 강경파와 周恩來와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사이의 투쟁은 1975년 주은래가 제안한 2단계의 발전 프로그램, 즉 포괄적인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 4大現代化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 보고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모택동의 권력행사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강경파의 온건파에 대한 공략이 가열되었으나, 毛의 사망 직후 중도적 입장을 취한 華國鋒의 권력승계 그리고 다시 등소평 일파에 의한 華의 축출 등으로 개혁·개방이라는 발전전략으로 점차 이념체계의 축이 옮겨갔다. 말하자면 구소련과 중국에서는 끊임없는 엘리트 交替와 理念體系의 緊張이 지속적으로 재현되어 왔다.

구소련과 중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엘리트 갈등과 상호작용하는 발전전략 중심의 實踐 理念에 있어서의 緊張은 北韓의 경우 비교적 일찌기 終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갈등이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자력갱생에 기반한 ‘중공

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金日成의 발전전략이 아무런 저항없이 실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 차례의 엘리트 갈등을 거치면서 김일성의 唯一的 支配體制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된 자주성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대내외적 정책 대강으로서의 실천 이념에 緊張을 초래할만한 要因이 완전히 除去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체사상이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이데올로기에 이르기 위한 實踐 理念으로서의 性格을 사실상 喪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을 둘러싼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의 정책 대강을 수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엘리트 갈등이 종결됨에 따라 자신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를 발전시켜야 했다. 여기서 주체사상이 體制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체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정책적 과정에 대한 정당화의 필요성이 사라진 반면 이제는 권위관계 구조(structure of authority relations) 혹은 권위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현 지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sup>3)</sup>

3) 이 점에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 특히 김갑철·고성준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상정하는 공산주의라는 목표 이데올로기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제2장 참조.

북한에서 이념체계의 변화는 1960년대 후반 革命的 首領觀의 정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1970년대 초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 혁명사상의 金日成主義化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권위구조의 정당화에 대한 관제는 金正日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직후인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념체계가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며 이것이 끊임없는 긴장 속에 존재해 왔던 반면, 현재의 북한의 주체사상은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권위구조를 합리화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공산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상실된 만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論理的 差別性을 부각시키거나 단절을 시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이다.

물론 후계자에 의한 전임자의 이념체계의 변화가 북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승계를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후계자인 김정일은 權力承繼에 대한 이론적 根據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에 직면하여 體制統合의 論據를 일부 새롭게 주창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보게 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는 결코 기존 실천 이념에 있어서의 긴장 혹은 갈등을 초래할 만큼 이념체계의 대단한 변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통합과 체제유지를 위해 권위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념체계는 '위로부터'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권력승계에 따른 리더십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사상의 위상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변화가 엘리트 구조의 재정렬(realignment)을 초래하는 서구<sup>4)</sup>와는 정반대로,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理念이 리더십의 從屬變數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에 대한 대체 엘리트층이 등장할 경우 새로운 이념의 제시 혹은 최소한 기존 이념체계의 유명무실화로 실질적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Russell Dalton, et al.,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등 참조.

### 第 Ⅲ 章 主體思想의 發展過程

주체사상은 애초에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제시된 이념체계가 아니었다. 1955년 主體라는 概念이 김일성에 의해 사용된 이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자주성에 기반한 4가지 지도원칙이 확립되고 체제건설의 박차를 위한 혁명적 군중노선이 주창됨으로써 비로소 대내외적 정책을 正當化하는 實踐 理念으로서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둘러싼 엘리트 갈등을 통해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자 점차 支配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으로 變化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sup>5)</sup>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이 김일성주의화를 주장하는 한편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전파함으로써 계속혁명론과 이에 필요한 권력승계의 구도를 합리화하였다. 본 장은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을 사회정치적 변동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5) 최근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後繼者로 內定된 시점이 1974년 2월 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內外通信」, 1993년 10월 28일.

## 1. 主體 概念의 登場

1982년 金正日은 주체사상의 起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었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레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었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시었던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sup>6)</sup>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18세(1930년)의 나이에 당시 항일투쟁가들의 투쟁방식에 회의를 품고 주체성에 입각한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

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21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3~14.

7) 주체사상의 연원을 1930년으로 보는 문헌은 김정일의 것이 최초는 아니다. 1973년에 출판된 「정치사전」의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일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나 반제청년동맹은 가공단체로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김일성의 심리적 열등감 때문에 造作된 것이었으며 그가 주도했다고 하는 카툰회의도 허구라는 평가가 있다.<sup>8)</sup> 이 경우 문제는 김정일에 의해서 주체사상의 기원이 왜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주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차후 김일성주의화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조선혁명에 대한 독자적 사상이 毛澤東의 中國式 社會主義에 대한 모방이 아니었다는 점<sup>9)</sup> 혹은 적어도 시기적으로 同時代에 구축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5년 12월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보는 南韓 學界의 견해는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논했던 “사상사업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문헌의 상당부분이 당시 김일성의 강력한 라이벌인 蘇聯派와 延安派의 이념적 보수성에 대해 非難하는 내용이었다. 시기적으로 당시는 한국전쟁 후 북한의 발전전략과 권력독점을 둘러싸고 이들 파벌과 투쟁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김일성이 자주성을 내세우는 주

8)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 (서울: 원일정보, 1989), pp. 23~24.

9) 이러한 의도하에서 북한이 주체의 사상적 기원을 1930년이라고 주장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尹炳益, 「北韓의 主體思想」 (서울: 統一硏修院, 1989), p. 25 참조.

체를 표방하여 이들의 외세지향적 경향을 비판하는 것은 그의 자연스러운 투쟁 방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歷史的 背景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戰爭 直後인 1950년대 후반은 북한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중요한 시기였다. 1946년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주도 아래 토지개혁을 실시했던 북한은 휴전 직후부터 농업협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 전부터 시작된 수공업과 상공업의 협동화를 농업협동화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아갔다. 이들 부문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대체로 1958년을 기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구축해 나갔다. 주목할 것은 농촌과 도시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 즉 농업과 상공업의 협동화는 당내 파벌간 아무런 마찰 없이 추진되었던 반면, 社會主義 工業化는 이론적 논쟁과 파벌간 對立을 거쳐서야 이루어져 나갔다. 여기서 대립이란 金日成 일파 對 朴昌玉과 崔昌益으로 대표되는 蘇聯派 및 延安派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대립은 북한 정치체제의 구축시기부터 권력 장악을 둘러싸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중에 개시되었던 김일성일파의 남노당파에 대한 숙청이 戰後에 대대적으로 확대되자 소련파와 연안파는 자신들의 입지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 이들 파벌은 서로 결속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엘리트간의 대립과 갈등은 發展戰略 論爭을 둘러싸고 첨예화되었다.

김일성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진행중이던 1955년 10월 21일

당 및 정권기관 지도일군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輕工業 中心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던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소련파 박창옥)의 보고를 비판하는 한편 重工業 中心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전략을 주장하였다.<sup>10)</sup> 이 연설은 김일성이 思想에서의 主體를 논했던 동년 12월 28일의 연설보다 불과 2개월 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主體 概念이 발전전략을 통해 첨예화된 엘리트 갈등의 와중에서 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된 주체 개념은 스탈린 사후의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變化에 편승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세계에서 소련의 해게모니는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사실상 끝나게 되었으며, 1955년에 이르러 소련은 스탈린에 의하여 코민포름으로부터 축출된 유고슬라비아와 제한적이거나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더욱이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행한 비밀연설을 시발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자 소련 중심의 국제공산주의는 점차 多極化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외견상으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스탈린의 모델을 충실하게 따랐던 김일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주체를 주창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성장배경을 가진 반대파벌에 대한 숙청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자

10)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33~435.

주성에 기반한 대내외적 政策의 基本原則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유의할 것은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논하는 문헌에서 반대파의 소련식 및 중국식 모방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現實主義의 意味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전쟁시기에 군대내에서의 정치사업방법문제를 가지고 허가이, 김재욱, 박일우가 쓸데없이 서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손가락으로 먹든 저가락으로 먹든 상관할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간에 입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시기에 ‘식’을 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치사업을 하는데 무슨 식이든지간에 이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것입니다.”<sup>11)</sup>

말하자면 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로서, 1962년 등소평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는 발언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실사구시적 발언은 차후 김정일이 現實에 대한 정확한 認識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낙후성을 지적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를 이미 제시해 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 9」, p. 477.

## 2. 實踐 理念으로서의 論理 展開

### 가. 自主性 原則의 確立

思想에서의 主體를 시발로 한 북한의 이념체계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를 중심으로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자주성에 바탕한 實踐 理念 면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 동원규범으로서 천리마운동,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혁명적 균중노선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발전의 背景에는 中·蘇紛爭이 있었다. 中·소분쟁은 1956년 2월 제20차 蘇聯 共產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비인도적 숙청과 개인숭배를 비판한 때부터 표면화되었는데, 후르시초프의 비판은 스탈린 개인의 격하라는 수준을 넘어 그가 구축한 세계사회주의체제의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스탈린식 社會主義 發展戰略을 택해 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던 中國은 후르시초프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양국의 표면화된 갈등은 1960년 6월 부카레스트회담에서 彭眞이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 원칙을 반박함으로써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양대 사회주의 국가간의 갈등 속에서 金日成은 獨自的인 行動空間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政策 大綱을 이루는 실천이념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자주성의 4가지 원칙은 思想에서의 主體 외에 經濟에서의 自立, 政治에서의 自主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이다. 첫째, 經濟에서의

自立은 1956년 12월 11일 김일성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자력  
 경쟁에 기반한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제기되었  
 다. 경제에서의 자립이 이 시기에 제기된 要因은 한편으로 북한이  
 한국전쟁 전 소련과 가진 不公正한 貿易去來를 김일성이 특별히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국제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가는 반면  
 기계와 필수품들을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북한에 수출하였다.<sup>12)</sup>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이 제1차 5개년계획을 위한 경제원조를 요청  
 하기 위해 1956년 6월과 7월 소련과 동구 국가를 방문했을 때 이  
 들 국가들로부터 이렇다할만한 援助 約束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최된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반대 파  
 벌들과의 발전전략 논쟁에서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重工業 優先  
 發展, 輕工業·農業 同時發展’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경제에서의 자  
 립을 내세우게 되었다. 후일 金日成은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  
 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가 되며, 경제적으로  
 예측된 민족은 정치적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  
 다.”<sup>13)</sup>고 말함으로써 그가 제시한 경제에서의 자립이 政治에서의

12) 「로동신문」, 1964년 9월 7일, Joungwon Alexander Kim, “The Peak of Socialism in North Korea: The Five and Seven Year Plans,” *Asian Survey*, vol. 5, no. 5 (May 1965), p. 256에서 인용.

13)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93.

自立을 위한 必須條件임을 밝혔다.

둘째, 政治에서의 自主는 1957년 12월 5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치에서의 자주을 주장하게 된 背景은 구체적으로 1956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계기로 한 소위 8月宗派事件 이후의 처리문제에 蘇聯과 中國이 介入함으로써 김일성을 격노케 했다는 점이다. 崔昌益, 朴昌玉 등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실세들이 거세된데 대해 양대 사회주의 국가는 미코얀(Mykoyan)과 彭德懷를 보내 이들을 복귀시키도록 종용하였는데 김일성은 이를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sup>14)</sup>

그러나 정치에서의 자주는 1957년 11월 소련 10월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Moscow Declara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15)</sup> 김일성은 모스크바 선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모스크바회의는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명제와 세계사회주의진영 나라들간의 호상관계에서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완정과 국가적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관계를 수립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본주의국가들호상간에는 있

14)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돌베개, 1987), pp. 643~644.

15)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p. 121.

어본 일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주의진영 인민들간의 호상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하며 그들간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합니다.<sup>16)</sup>

즉 김일성은 모스크바 선언이 사회주의 국가간의 平等성과 自主성을 존중하고 內政 不干涉의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계로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북한의 行動空間이 위축되고 대내정책에 대한 中國과 蘇聯의 影響력을 혐오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김일성은 이 선언을 북한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셋째, 國防에서의 自衛는 김일성이 1962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체의 무력에 의한 대남혁명전략의 수행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국방에서의 자위는 4大軍事路線 즉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자주노선 표방의 背景으로는 中·소분쟁에 의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다원화라는 거시적인 맥락 외에도 1962년 10월에 있었던 두 가지의 국제적인 사건에서 보여준 소련의 태도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이 쿠바 미사일 위기때 미국의 봉쇄정책에 投降主義的 태도를 보였으며 中·印 國境紛爭때 비사회주의 국가인 印度를 支

16)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당 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408~409.



援하였던 것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은 혐오하였다. 또한 1961년 南韓에서의 軍事政府의 출현으로 김일성은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통해 심화된 반미의식을 가졌던 그는 미국이 남한내 군사정부의 등장을 허용한 사실을 곧 미국이 남한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소의 갈등 상황에서는 한국전쟁시와 같은 양국의 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게 되었다.

사상에서의 주체를 포함하여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자주성에 기반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4가지 政策的 大綱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14일에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Ali Archam) 社會科學院에서 한 연설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립한 김일성은 한걸음 더 나아가 1966년 10월 5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대공산권내 외교정책에서 북한의 자주성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對外關係에서의 自主를 표방하였다. 이는 정치에서의 자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소의 북한내 정치간섭을 배제하는데 많은 비중을 실었던 반면, 대외관계에서의 자주는 이보다 더 積極的인 意味에서 소련 및 중국과의 同等性を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적 동등성에 대한 주장은 각국의 당이 자국의 구체적인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다’고 말한 1965년 김일성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 연설에서 이미 시사되었다.<sup>17)</sup> 그리고 1966년 10월 당 대표자대회가 열리기 2개월 전

인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이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 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을 어느 한 당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다른 당들은 그밑에서 복종하여야만 할 것이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또한 자기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sup>17)</sup>고 역설함으로써 국제적 동등성에 대한 주장을 부각시킨 바 있었다.

#### 나. 革命的 群衆路線의 展開

김일성은 주체적인 혁명의 지도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천리마운동,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혁명적 군중노선이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群衆路線이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 세우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sup>18)</sup>

1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05.

18) “자주성을 옹호하자,” 金俊燁·金昌順·이일선 공편, 「北韓研究資料集 7」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1), p. 66.

19)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1965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19」, p. 506.

다시 말하자면 군중노선은 人民大衆을 動員해 혁명을 하나의 현실로 전환하는 手段인 셈이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사상개조와 정치사업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思想改造란 말할 것도 없이 인민대중이 혁명적 세계관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주조를 의미하는 한편, 政治事業의 優先性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서 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이라는 논리하에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인민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勞動의 效率性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군중노선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背景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韓國戰爭으로 인한 심각한 勞動力不足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 자립경제하에서 자본과 기술의 투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공업부문으로 대거 이동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勞動力의 移動마저도 限界에 도달하게 되자 김일성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리 방식으로서 군중노선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군중노선의 전형으로서 제시되었던 千里馬運動은 1957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을 모방해 채택한 경쟁운동이었다. 천리마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첫째로 개인간의 노력경쟁이 아니라 작업반 단위의 集團的 競爭運動이었으며, 둘째로 공업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지식노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었고, 마지막으로 생산

혁신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思想教育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천리마운동에서의 문제점은 능률보상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향상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보다는 노동시간의 증대에 의한 絶對的 剩餘價値의 증가를 꾀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20)</sup>

한편 김일성은 농촌과 공장에서의 과학적 생산관리방식으로서 靑山里方法과 大安의 事業體系를 각각 1960년과 1961년에 제시하였다. 이같은 군중노선의 명칭은 김일성이 각각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조합과 평남 용강군 대안전기공장을 現地指導한 것에서 연유하였다.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생산관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상부기관 요원들이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현지에 내려와 인민대중과의 토론을 통해 실정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해결해 주며 지배인층의 무사안일주의적 사무 태도와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를 감독하고자 現地指導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체계를 대체시킨 黨委員會가, 그리고 농촌에서는 종래의 군인민위원회 대신에 郡協同農場 經營委員會가 최고 지도기관이 되어 종전의 상부하달의 행정적 통제 방식을 지양하고 각급 당이 수평적으로 노동력을 지도·관리하는데 관여 또는 참여하였다.

그러나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군중노선은 政治事

20)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6), p. 64.

業의 優先性을 강조하면서 물질적 동기를 유발하는 합리적 또는 經濟的 要因을 等閑視하는 오류를 범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물질적 자극만 주로 내세우는 것은 수정주의이며 아주 위험합니다. ...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 분배에서 차이를 두기는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배에서 차이를 둔다고 하여 물질적 자극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으로써 물질적 자극은 충분하며 그 이상 나가면 사람들에게 리기주의를 길러주게 됩니다. ... 정치 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옳바르게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sup>21)</sup>

즉 김일성은 물질적 동기 부여 자체를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각 개인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는 經濟的 人間型을 否定하였다. 이는 1950년대 말 중국이 실시했던 대약진운동 초기에 사회주의적 분배체계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낳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운동 말기에 물질적 유인을 사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21)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재정부문 일군 협의회에서 한 담화, 1968년 10월 31일),” 「사회주의 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377~378.

### 3. 構造의 正當化 理念으로의 變化

#### 가. 唯一思想體系의 確立

북한은 1970년 11월 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黨의 唯一思想이라고 천명하였으며, 1972년 12월에 채택된 社會主義憲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 이렇게 주체사상은 1970년대 초까지 북한체제의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이념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위상이 이상과 같이 제고되는 裏面에는 그것이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을 위한 실천 이념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김일성을 위요한 權威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이념이 金日成主義로 정식화되고 김정일이 주도한 3大革命小組運動이 ‘대를 이어 혁명’이라는 구호 밑에 계속혁명론을 대대적으로 확산·전파하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970년대 주체사상의 이러한 變化에는 다음과 같은 背景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추진된 經濟·國防竝進 路線과 관련하여 노선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이를 반대하는 온건파간의 갈등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1962년 12월 제4기 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의해 이미 제시된 이 노선은

1966년 10월 소집된 당 대표자회의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이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소분쟁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변환경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간의 갈등이 첨예한 형태로 표출된 월남전쟁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金昌奉, 崔賢, 許鳳學, 崔光, 吳振宇 등 군부지도자로 대표되는 強硬派는 사회주의체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해서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군수공업 중심의 중공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소련의 기술과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소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박용국 등 穩健派는 7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주장하였다.<sup>22)</sup> 이러한 엘리트 갈등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의와 1967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경파가 부상하고 온건파가 숙청되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강경노선이 추진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68년 말 金昌奉, 許鳳學, 崔光 등 強硬派는 당이 부과한 군사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인민군 내에서 당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김일성의 비판을 받고 肅清되었다.<sup>23)</sup> 발전전략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공방은 非效率的인 예산집행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김일성은 전략논쟁 과정에서 군부의 최고 지도부를 교체 또는 숙청함으로써 軍部에 대

22)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 105.

23)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p. 766.

한 그의 統治力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唯一支配體制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내 엘리트 갈등에 의한 실천 이념에서의 긴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首領論의 定立과 때를 같이하였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전전략 논쟁이 일단계 마무리되었던 1967년 경부터 김일성에 대한 수령 칭호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69년에는 수령에 대한 관점, 즉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향도인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는 革命的 首領觀이 정리되었다.<sup>24)</sup>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위해 수령 칭호가 사용된 것은 194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될 즈음에는 그가 유교문화적 전통에서의 家父長的 權威까지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정치 및 사회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절대적 지배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초 당의 유일사상으로 표방되었던 주체사상은 김일성 혁명사상의 틀 안에서 이해되기에 이르렀으며 김일성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념으로 더욱 중요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및 김일성주의화는 金正日의 登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과 소련에서의 권력승계 또는 이를 위한 승계자 지명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

24) 李鐘奭,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 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 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3), pp. 104~105.



들인 김정일에게의 권력승계 작업을 1970년대 초부터 암암리에 진행시켰다. 우선 김일성은 1971년 2월 3일 각 기관 청년 사업부장 및 사로청 위원장 협의회에서 社勞靑 간부가 4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비판하면서 간부층의 세대교체를 강조하였다. 郡 사로청 간부는 32살 그리고 中央 사로청 간부는 35세까지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sup>25)</sup> 김정일이 당시 29세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의 발언은 金正日의 世代에게 혁명을 잇게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동년 6월 24일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새로운 세대에 의한 혁명위업의 완수 즉 혁명의 세대교체를 강조하였는데,<sup>26)</sup> 이는 김정일에게 권력승계를 직접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김정일에게 권력승계 작업은 1973년 9월 로동당 중앙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組織 및 宣傳煽動 擔當秘書’로 임명되고 이듬해 2월 11~13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政治委員으로 전격 발탁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sup>27)</sup>

金正日是 자신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思想的 後繼者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政治委員으로 피선된 일주일 후인 1974년 2월 19일 그는 당 사상사업일

25)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15~17.

26)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6」, p. 204.

2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군들에게 행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대중연설에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金日成主義라고 정식 선언하였으며,<sup>28)</sup> 같은 해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이를 적극 전파하였다. 이것은 권력승계 지목자가 사상의 전수자임을 표방하려는 것으로서 中國 문화혁명 기간중 모택동의 후계지목자인 임표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毛思想을 적극 홍보·전파한 사례와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金日成主義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sup>29)</sup>

김정일의 발언에 의한다면, 김일성주의는 1955년 이후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주체에 대한 갖가지의 명제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김

28) 卓珍·金剛一·朴弘濟, 「김정일지도자 2」(東京: 東邦社, 1984), p.

12. 이 책에서는 김일성이 한 당간부와의 대화에서 김일성 혁명사상의 김일성주의화의 필요성을 1970년 5월에 이미 제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29) 위의 책, p. 16.

일성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상황하에서 주로 정책적 목적에서 표방되었던 명제를 김일성의 無所不爲한 權威를 正當化하는 이념으로 변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아닌 아들이 아버지의 사상을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하나의 이즘(ism)으로 승화시킬 만큼 사상과 이념의 獨占的인 解釋者 및 繼承者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일의 김일성주의화 선언에 곧 이어 김일성사상의 擴散 作業이 진행되었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은 “전 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제5기 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의 채택은 유일사상의 확립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

- 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 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 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야 나가야 한다.<sup>30)</sup>

이상의 항목 중에서 특히 1항과 10항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1항은 김일성 유일사상의 실천을 하나의 經典의 교리처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10항은 계속혁명의 논리 속에 김일성·김정일의 權力世襲을 공공연히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 나. 3大革命小組運動의 擴散

1970년대에 김일성의 권위가 절대적 지위가 확보되는 데에는 당 내에서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함께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한 주체사상의 전국적인 전파가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의 3대혁명은 思想·技術·文化에서의 革命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노선으로 해방 이후 김일성이 이곳

3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저곳에서 산만하게 논의해 왔었다. 먼저 韓國戰爭 直後인 1953년 8월 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로동자들 속에서 청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하며 공장 구락부와 도서실 사업을 개선하며 여러가지 기술교육과 기술전습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며 그들의 생활조건과 생활풍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급의 의식수준과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sup>31)</sup>고 말하면서 북한의 인민들의 사상적, 기술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앙위원들이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언급은 革命的 群衆路線(특히 천리마운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세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 이 세가지 사업을 잘하는것 다시 말하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하는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입니다.”<sup>32)</sup>고 말했다. 결국 세가지의 혁명은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sup>33)</sup>

31) 김일성,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62.

32)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찬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8년 5월 11일),”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65.

33) 11조: 국가는 내외적 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3대혁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前衛隊로서의 3대혁명소조는 1973년 2월 당 중앙위 부장협의회에서 최초로 조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1974년 9월에 이르러 '3대혁명소조'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의 추진이라는 명목 외에도 몇가지의 目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성취하도록 住民들을 勸勵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혁명적 군중노선 특히 천리마운동이 퇴색하여 새로운 노력동원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과 노동규율 등의 사상교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基本目標가 思想革命에 두어졌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둘째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革命的 群衆路線을 한단계 발전시켜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경험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弊害를 解決하려는데 있었다. 중국과 같은 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혁을 수반한 문화혁명 기간중 官僚制의 刷新(bureaucratic shake-up)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의 김일성은 과격한 방법이 아닌 3

---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한 점진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다음 발언은 노령화된 간부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갖가지 병폐에 젖어있음을 지적하지만 그들의 과거 경력을 고려해 과격한 방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간부들이 이와 같이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후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일부 오랜 간부들 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한자리하였으니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른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간부들을 떼어버릴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것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 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습니다.<sup>3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결코 관료주의 등의 사회

34)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5.

병리에 젖어있는 사회 각 기관의 간부들을 숙청하려는 과격한 官僚制 刷新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모택동 사후 집권한 등소평이 당·정의 역할을 분담시킨 것이나 관료적 통제 메카니즘을 완화시킨 것과 같은 개혁적인 조치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더욱 제고시키고 후계자로 지목된 金正日의 권력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대에 의한 革命偉業의 繼承이라는 논리 속에 主體思想을 전국적으로 擴散하는데 있었다. 즉 3대혁명소조운동은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권위구조를 정당화하는 논거를 포함하는 주체사상을 김정일에 의한 청년 세대의 조직적 동원을 통해 전파하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에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등의 소위 청년 인테리를 약 90%정도까지 참가시키고 그 외에 당관료, 기술자, 과학자, 대학교원 등을 동원하였다.



## 第Ⅳ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1): 思想的 體系化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주체사상은 체제의 권위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동시에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 김일성이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그 구체적인 방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습니다. 우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에 구현되고 있습니다.”<sup>35)</sup> 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대내외 정책의 기초 또는 대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 김정일 주도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확산으로 주체사상은 권위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주체사상은 거기에 포함된 복잡한 명제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980년대 초에 이

3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2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8.

르러 金正日의 공식 등장과 함께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체계화 과정에서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繼承性을 주장하면서도 그것과의 差別性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목표 이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정당화하는 實踐 理念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북한 특유의 權威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차별성은 창조성이라는 표현으로 합리화되어 오다가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대변혁 후인 1992년에 이르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본 장은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배경을 살펴본 다음 각 분야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背景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질문은 왜 그것이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며 1980년대 초라는 시기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主體를 김정일로 삼았던 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됨으로써 후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추게 된 그가 이제는 사상적으로도 완벽성을 지님으로써 미래의 首領으로서의 面貌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은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김일성 자신이 수

령을 중심으로 한 체제구조를 논리화하는 것보다 권력승계의 지목자이며 주체사상의 전수자인 동시에 유일한 해석자가 된 김정일에게 자연스럽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정일은 수령의 계승에 대비하여 자신 중심의 미래 권위관계를 설정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時期에 있어서 1980년대 초가 택해진 이유는 김일성이 사회주의체제 특히 중국에서 권력승계의 비제도화로 인한 엘리트 갈등과 발전전략의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鄧小平의 지지자들이 정치국에 복귀하였고, 1980년 2월 제11기 5중전회에서 모택동의 후계자였던 華國鋒이 그의 지지자들을 잃는 한편 鄧의 측근인 胡耀邦이 총서기로 등장하게 되었다.<sup>36)</sup>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택동 사후 엘리트의 浮沈과 함께 문화혁명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초를 뒤흔드는 改革·開放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일성은 권력승계 구도를 일찌기 공식화함으로써 엘리트 갈등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첫째 과제의 해결은 1980년 당대회에서의 김정일 공식 등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제의 해결은 주체사상 체계화에서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존의 자주성의 4가지 원칙과 혁명적 균중노선을 북한체제의 지도적 原則과 지도적 方法으로 각각 명시하여 경제체제의 발

36) John Gardner,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1982), pp. 138~183.

전전략에 있어서 중국에서와 같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지도부의 교체와 이에 따른 實踐 理念에서의 葛藤이 재현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후계자로 하여금 특유의 사회주의체제 발전전략을 유지시키면서 이념적 체계화를 전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分野別 觀點

### 가. 人間中心의 世界觀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의 하나로서 人間이 만물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또는 인간결정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인간중심에 대한 주장은 1972년 김일성이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sup>37)</sup>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주장을 더욱 부각시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의 고유한 속성 즉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自主性으로 인해 인간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

37)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마이니찌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 p. 390.

하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創造性으로 인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혁시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고, 意識性 때문에 합목적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규제한다는 것이다.<sup>38)</sup>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세가지의 인간의 속성에는 북한체제가 정의하는 인민대중(궁극적으로 노동계급화)의 특수성이 인간의 고유한 보편적 속성으로 변용되는 ‘特殊性의 普遍化’ 즉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된 개념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측면이 있다. 첫째, 自主性은 김일성이 이미 1955년에 제기했던 사상에서의 주체를 계기로 정책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보다 발전하여 폐쇄와 단절에 바탕을 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獨自的 發展의 논리로 제시되었던 개념인데,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의 하나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sup>39)</sup>

둘째, 創造性은 김일성이 주체를 논하는 중에 수시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주의적 해석을 타파하고 현실에 기반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現實主義的 論理를 김정일이 인간의 고유한

3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p. 16~17.

39) 1974년 이미 金日成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동물과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교재들은 이상의 주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체계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책공업대학 철학강좌, 「변증법적유물론」(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77), pp. 28~37 참조.

속성으로 전환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운동은 언제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현실속에서 진행됩니다. 혁명운동은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며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낡은 관점을 반대합니다.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발성이 억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대하는 입장을 지켜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능숙하게 구현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창조적립장은 교조적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sup>40)</sup>

김정일은 이러한 實事求是의 관점에 기초하여 “문제는 기성리론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해당 력사적시기의 주관적조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습니다.”<sup>40)</sup>고 말하면서 時代的 狀況과 인민의 이익추구와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이론적 명제나 공식보다 우선하다는 논리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결국 김정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로부터의 탈피를 김일성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意識性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원체제의 규범으로서 유일사상 또는 주체사상교양을 주장한 것이나 「사회주

4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33.

41) 위의 논문, p. 59.

의헌법」 제11조에 나타난 바와 같은 온 사회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를 위해 사상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에서 의식성의 概念的淵源을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그 때까지 강조되어 왔던 사상의식을 마치 보편적인 합목적적 인간 행위의 속성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이 자주성과 창조성만을 주장하면서 의식성이 개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金正日은 이 세가지를 병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金日成이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sup>42)</sup>라고 말할 때에도 의식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金正日은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됩니다.”고 말함으로써 意識性이 다른 두 가지 人間屬性의 基盤이 됨을 분명히했다.

김정일이 의식성을 자주성이나 창조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한 것은 주체사상에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의식성의 개념이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의 의식에 대한 견해로부터 脫皮하였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이 혁명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생산양식의 변

42)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394~395.

화를 초래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급의식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의 산물로 보았다. 意識의 問題를 다루고 있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이에 관한 3가지 命題를 찾아보면, ① 의식은 실생활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② 의식은 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③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모순을 낳게 될 때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는 의식을 經濟的인 矛盾의 表現으로 보는 한편 의식이 기존의 생산양식을 비판하고 혁명적 행동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관점의 초점은 의식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環境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김정일도 의식의 추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는 달리 그는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간결정론의 이름 아래 인간의 意識이 단순히 환경에 의해 빚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끊임 없는 교양에 의해 형성되고 성숙되는 것으로서 環境을 支配한다고 파악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상의식이 人爲的인 改造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 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고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 인간 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입니다.<sup>49)</sup>



이렇게 김정일은 마르크스주의와 구별되는 의식성의 개념을 통해 인간개조의 본질인 사상개조, 즉 계급의식의 교양에 의한 共產主義 人間型의 형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政治事業 先行性和 政治道德的 刺戟의 優先性을 주장했다. 먼저 정치사업이란 사람과의 사업을 말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을 의미하며, 이것이 행정조직이나 기술 및 경제에 관한 사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자극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도덕적 자극을 압도한다면 사회주의의 근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人間中心의 世界觀으로 체계화한 것은 인민대중을 인위적으로 思想教養하여 역사의 추동력이라는 이름 아래 동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크게 이탈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인간이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 존재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고급한 물질의 운동인 인간의 운동이 저급한 물질의 운동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것이 유물론과 변증법의 기본원리에 맞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sup>43)</sup>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理論的

4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p. 61~62.

4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48~149.

連繫를 논한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축 과정에 대한 正當性의 根據를 남겨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관계를 창조성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계승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애당초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 나. 繼續革命的 歷史觀

김정일의 주체사상에서 나타난 역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는 人民大衆을 사회역사의 主體로 규정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에 속하며 물질발전의 발전 원리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로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표방하는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인민대중)이 계급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런 주장은 김정일 고유의 것이 아니다. 金日成은 이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sup>45)</sup>고 말한 바 있다. 단지 金正日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들어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주체로서의 인민대중에 대한 金正日의 논의는 黨과

45)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 390.

首領의 영도문제로 귀착되고 만다. 그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sup>46)</sup>고 말했다. 곧 최고 지도자인 首領과 黨의 指導 없이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체라는 표현은 수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둘째, 김정일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모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가 어떻게 共產主義로 移行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북한체제가 革命의 持續性을 正當化하는가를 밝혀보기로 하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社會主義는 반혁명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새로운 소유권 구조가 확립되는 단계로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轉移段階(transitional phase)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국가가 사회의 계급적 분열을 없애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의 기초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면 국가는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7)</sup>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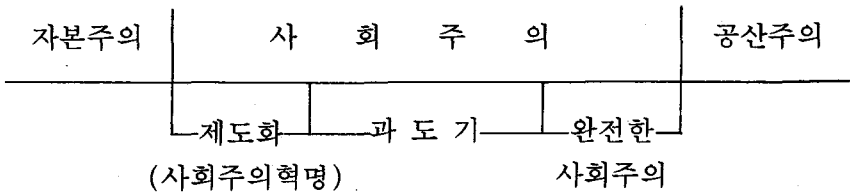
4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22.

47) Fried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in Robert C. Tucker, ed.,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2), p. 713.

켰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공산당에 의한 권력의 행사라는 것으로 구체화했으며, 노동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를 주장하면서 高度의 生産性을 강조하였다.

한편 金日成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를 소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설정하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보았으며, 레닌처럼 사회주의 단계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물질 기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社會主義를 細分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된다.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은

〈도표 1〉 김일성 주체사상에 나타난 역사발전 모형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붕괴 및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사이에 過渡期를 설정하였다.<sup>48)</sup> 그에 의하면, 이 과도기에서는 착취에 의한 계급관계가 끝나고 사회주의제도가 건설되지만 階級間的 差異 특히 농민과 노동자 사이의 차이는 계속 존재함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하여 이러한 차이를 없애

48)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참조. 이 논문은 원래 1967년 5월 25일 당 사상사업부문 일군들 앞에서 행한 연설이다.

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된 후에도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서 國家權力的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이 상정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잔재가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시기로서 繼續的인 革命이 필요하다.<sup>49)</sup>

金正日은 위와 같은 김일성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의 과도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3大革命의 繼續性を 정당화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중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성원들 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에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상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에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과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sup>50)</sup>

49) 1986년 김일성은 완전한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대해서 별도로 서술한 바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界線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75.

50)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마르크스 탄생 165주년 및 서거 10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김정일은 당시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단계(보다 구체적으로는 과도기의 단계)로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간의 物質 및 文化水準의 차이와 노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3대혁명을 계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기서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그리고 혁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즉 자신의 세대로의 ‘代를 이어 革命’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에 의해 도식화되고 김정일에 의해 구체화된 대를 잇는 계속혁명론은 金日成·金正日의 권력승계를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되는 權威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론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 다.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의 首領·黨·大衆觀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1986년 수령·당·대중 사이의 관계를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으로 정식화했다는 점이다.<sup>51)</sup> 1960년대와 1970년대의 金日成 主體思想은 자주성의 4가지 원칙과 혁명적 균중노선 그리고 3대혁명이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대내외적 정책의 기초를 이루면서 폐쇄와 단절을 바탕으로 한 대외관계와 인민의 총체적 동원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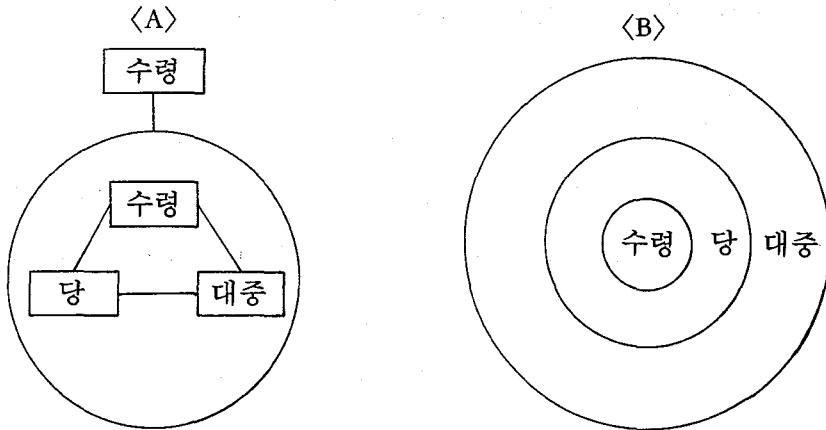
p. 91~92.

51) 김정일은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집니다”고 하면서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바 있다. 위의 책, p. 16.

당화하는 政策基調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초반 김일성주의화가 선언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 반면에 金正日은 북한 특유의 엘리트와 인민 사이의 권위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김정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 사이의 權威關係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首領은 무오류성을 지닌 생명체의 ‘뇌수’이며, 혁명의 주체로서 人民大衆은 조직활동을 통한 수령에 충성함으로써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고, 黨은 생명체의 신경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도표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수령·당·인민대중관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두 가지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우선 <A>에서와 같이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부분이 전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有機體的 統一性을 강조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어서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는것만큼 그것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켜서는 안됩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는 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습니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며 대중과 떨어진 당은 당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수령, 당, 대중을 분리시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늘 강조하여왔습니다.<sup>52)</sup>

동시에 김정일은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sup>53)</sup>고 말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三位一體인 동시에 首領이 유기체의 最高 優位를 점하는 구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당조직이 둘러싸고 있으며 다시 인민대중이 주변을 이루는 <B>와 같은 모형에 의해 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통일성의 원리보다도 生命體에서의 부문간 位階秩序를 잘 묘사한 것으로서 북한 특유의 權威關係의 構造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는 김정일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의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크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수령인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합리화하게 되었다. <B>모형이 설정하는 삼

5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63.

53) 위의 논문, p. 164.



자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生命의 本質은 수령에 있고 수령은 金日成이라는 특정한 自然人이다. 김정일은 때로는 수령을 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아닌 김일성이 당의 수령임을 분명히하고 그가 생명체의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다.

혁명의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을 논한 레닌주의에서는 黨이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이고 자각된 사람들이 결집하여 인민대중에게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선두에서 지도하는 부대이다. 따라서 당 전체가 集合體로서 首領이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그러나 主體思想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김일성이라는 특정한 個人을 首領으로 보고 그의 활동과 결부지어 집단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둘째, 黨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連結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항일유격대식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운동을 주관하고 트랜스미션 벨트(transmission belt)인 당의 周邊組織들을 지도한다. 주변조직은 조직생활을 통해 대중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혁명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중을 교화시키며, 이런 의미에서 당의 충실한 방조자 또는 黨의 外廓團體라고 불리운다. 김정일은 당의 이러한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이 반제국주의혁명

54) 하수도 저, 한백린 역, 「김일성사상비판: 유물론과 주체사상」(서울; 백두, 1988), p. 150.

전통의 계승자라고 묘사하면서 당의 신화적 권위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당의 최고 영도자이기 때문에 당의 지시는 김일성의 지시와 같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sup>55)</sup>

당이 수령과 대중의 연결 메카니즘인 한, 黨은 그 자체의 집합적인 행동보다도 組織으로서 더 중요한 機能을 행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 점이 레닌의 당에 대한 관점과 다르다. 레닌에 의하면 직업적인 혁명가 집단인 당은 최고의 계급조직으로서 사회주의이론의 행동지침에 따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동한다. 반면에 주체사상에서의 당은 인민대중이 組織生活을 통해 首領에게 接近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장치이다. 다음의 김정일 발언이 이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결합체입니다.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다같이 포괄하게 됩니다. ...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관의 구성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관과 당관이라고 하지 않고 수령관과 조직관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조직관은 당조직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합니다. ... 조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될수 없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령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수령이 안겨주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없습니다.<sup>56)</sup>

55)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ㄷ·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1982년 10월 1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p. 135~136.

56)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

셋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黨은 당관료들의 수령의 유일사상교양과 조직원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표현이나 의견 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정일에 의하면 당의 이념이 唯一的이지 않으면 당의 단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동분자들이 재등장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sup>57)</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당내의 분열이나 파벌을 반대했다는 점에서는 레닌의 당이론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당이 수령의 사상에 의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명체론은 전위부대로서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하여 투쟁하는 레닌의 당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성격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령·당·대중관은 다음의 論理的인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이 레닌에 의해서 제창된 民主主義 中央集權制(democratic centralism)라는 조직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수령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당사업에 있어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것이며, 중앙집권제라는 용어는 당원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

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 202.

57)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22~323.

수령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당에서 民主主義라는 말은 修飾語에 불과하며 언제나 중앙집권제라는 말에 종속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과 중앙집권제라는 말은 사실 서로 共存 不可能한 用語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집단없이 존속할 수 없다는 集團主義的 大衆觀은 역설적으로 集團主義를 抑壓한다는 점이다. ‘하나를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강조되며 이것들은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귀속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회생명체안에서 개인들사이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중요하지만 그 어느 개별적인 성원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됩니다.<sup>58)</sup>

그는 수령이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원들 사이의 동지애는 사사로운 것이며 오직 수령과의 동지애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들 사이의 육친적 사랑도 수령과의 동지적 사

5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랑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sup>59)</sup>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수령만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면서 首領의 無誤謬性을 내세워 그에 대해 忠誠하는 것을 혁명적 의리로 삼는다면 사회주의의 집단주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전체가 하나를 위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도 전체도 모두 수령만을 위한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한 수령·당·대중관은 김정일이 권력 엘리트와 인민대중 사이의 권위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김일성에 대한 수령 칭호와 개인숭배 그리고 유일사상화가 오랫동안 이렇다할 정당화 작업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수령의 후계자로 공인된 김정일이 생명체의 개념으로 논리화함으로써 북한 특유의 支配構造를 合理化시키는 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

5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p. 216.

## 第 V 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2): 經濟體制에 對한 새로운 理解

### 1. 背景

김정일은 1980년대 중반 경제체제에 대한 비교적 이례적인 문헌들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 혁신에 대한 주장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레닌주의적 해석을 탈피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對內外的 變化가 있었다.

첫째, 中國은 1978년 공산당 11차 3중전회에서 화국붕의 세력을 축출하고 진출한 개혁지향적인 鄧小平 일파가 改革·開放의 추진을 결정한 이래 점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경험을 보여왔다. 1980년대 초반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민공사를 해체하는 한편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1984년 12차 3중전회를 계기로 개혁은 도시로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을 부여하고 기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내적 개혁 외에도 중국은 1980년 5월 廣東省과 福建省의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무역자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외개방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더욱이 중국의 개혁·개방은 美國 및 日本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여기서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에 자극받아 북한경제를 재평가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존속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蘇聯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대외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중국과 함께 소련마저 사회주의체제의 변신을 시도한다는 점에 자극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해 새롭게 해석해야 됨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北韓의 經濟體制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1950년대 말에 이미 정착된 자력갱생에 기반한 중공업 중심의 북한식 발전전략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의 불균형 현상과 성장둔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 서방의 자본과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6개년계획(1971~1976) 기간 동안에 대외개방이 추진되었지만 외채만을 남긴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그 후 전개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은 자력갱생으로 회귀하는 경제정책이었다. 이러한 대내적인 경제적 난관이 북한 周邊國의 變化와 對照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경제체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진전된 南北韓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상대적 열세감을 낳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이는 실제로 김정일이 남북한간의 관계를 경제 경쟁으로 파악한데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체제 속의 남

한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민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輕工業 革命論과 레닌주의에서 탈피한 자본주의론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變化 內容

### 가. 輕工業革命論

1984년 북한이 대내적인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들 수 있다. 동년 9월에 채택한 합영법이 1970년대 전반기의 대외개방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롭게 마련한 개방정책의 일환이었다면,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경공업부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상반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이 운동이 북한의 경제 체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에 김정일에 의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 중심의 輕工業에 대한 強調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1984년 2월 16일 한 연설<sup>60)</sup>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남북한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 즉 단순히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아닌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經濟體制 戰

60)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군협의 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저작선」, pp. 187~204.



爭'이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가 人民生活 向上에 대해 주장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對南革命을 위해서 주민들의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고 그 결과 남한내 혁명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戰爭準備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주민과 군인들이 자신의 體制에 대해 優越感을 가져야만 전시에 체제수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후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민주개혁으로 사회주의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감으로써 이들이 한국전쟁때 희생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要求가 變化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을 가질수 없습니다.”<sup>61)</sup>고 말하면서 物質的 滿足이 사상교양보다 優先한 사안임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가 이렇게 인민생활의 향상을 논하면서 기존의 사상의식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질생활의 향상에 의해 충성심을 제고하려는 그의 의도는 남북 체제경쟁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우월성의 고양이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61) 위의 논문, pp. 189~190.

다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形式的인 思想教養의 問題가 이미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대체로 인식단계에 머물러있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체득하고 신념화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학습회나 강연회를 몇번 하였는가 하는 통계나 받고 문구를 따로의우기 위한 경쟁 같은것이나 조직하면 혁명관을 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론쟁하면서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문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구를 기계적으로 따로의우게 하는 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 물론 혁명관을 세우자면 인식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인식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적 각오와 투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것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sup>62)</sup>

즉 당 일군들의 사상교양사업이 형식에 치우쳐 있으며 기계적인 인식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복한 주민에게 혁명관이 內面化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김정일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방지해야 된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62)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pp. 197~198.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措置로 김정일은 크게 食衣住(순서가 의식주가 아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제시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 및 화학화와 주체농법을 관철함으로써 농업의 혁신을 꾀하고, 인민소비품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을 확대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며, 주택건설 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비재와 관련한 輕工業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말하는 輕工業革命은 방직, 식료품, 신발, 부엌용품, 학용품 및 기타 일용잡화에 관한 공업에 있어서 量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質的인 측면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몇가지 方案을 제시했다. 경공업 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할 것,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원료와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것, 생산공정을 합리화할 것, 타 경제부문이 경공업 부문을 도울 것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들은 시행되기 힘든 것이었지만, 경공업혁명에 대한 주장은 같은 해 추진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世界體制에 對한 認識變化

김정일은 1987년 9월 마르크스·레닌주의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구분되는 세계체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건설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

주의」(1917)에 나타난 帝國主義論을 살펴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최후의 단계 또는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가 말한 제국주의의 特徵的 樣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어 獨占 段階가 되며, 둘째로 몇몇 은행 자본가가 산업자본을 흡수하여 金融寡頭制가 형성되고, 셋째로 생산품의 수출과 함께 資本의 輸出 現象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거대 자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世界의 領土가 分割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 국가는 단순히 원자재의 획득이나 시장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치밀한 네트워크에 의한 자본 침투를 통해 貧國에 대한 植民地的 支配를 강화하게 되고, 세계는 불공평한 발전(uneven development)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빈국에 대한 지배강화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競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sup>63)</sup>

한편, 金正日은 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해서 現代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特徵을 논하였다.

첫째는 미국 등의 거대 자본주의 국가의 多國籍 企業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相互依存關係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말하기를,

다국적기업체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

63) Henry M. Christman, ed., *Essential Works of Lenin* (New York: Dover, 1966), pp. 177~270.

본주의나라들의 호상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전에는 자본주의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것은 파괴적인 무장충돌과 전쟁으로 번져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자본주의열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열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었습니다.<sup>64)</sup>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자본가들이 세력권 쟁탈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전후 군수산업의 팽창으로 막대한 부를 취득한 미국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타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經濟的 및 技術的으로 協力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자본주의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레닌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서, 김정일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넘어가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둘째로 전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은 新植民地的 方法에 의해 발전도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켰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신식민지적 방법이란 自主權의 認定과 원조를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이를 미끼로 市場과 자재를 確保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에 의해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가져와 체제

64)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2.

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셋째로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社會階級の 構成에 變化가 발생하여 마르크스가 예견한 바와 같은 勞動者階級에 의한 혁명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생산력 즉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육체 노동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기술 및 정신 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문화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들이 인테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부르조아화됨으로써 고전적 의미에서의 革命階級이 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인테리대렬이 급속히 늘어나면 근로자들속에서 소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 커질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혁명적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을수 없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많은 인테리들이 부르조아사상과 소부르조아사상에 물젓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나섭니다.<sup>65)</sup>

말하자면, 현대 자본주의체제는 國際的으로 相互依存的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노동계급의 소부르조아화로 階級革命이 不可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현 자본주의체제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자본의 국제화를 레닌이 말한 자본의 침투에 의한 발전도상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레닌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그의 주장

65) 위의 논문, p. 181.

은 단적으로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sup>66)</sup>고 표현될 정도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핵심인 자본주의 붕괴론 또는 자본주의 국가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김정일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외에도 社會主義 發展過程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여기서 제기된 問題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제도적인 면에서 더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위 ‘좌우경적인 편향’을 범한 결과 여러가지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문제는 1956년 후르시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평화공존론, 1950년대와 1960년대 동구의 개혁·개방,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중국 문화혁명뿐만 아니라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추진된 개혁정책 등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김정일의 이상과 같은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은 스즈키 마사유키가 ‘北韓式 新思考’<sup>67)</sup>라고 부를 만큼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 대 사회주의체제의 투쟁과정에서 전자에 의한 후자의 包圍로 보는 김정일의 危機意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세계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경제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의 1982년 발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6) 위의 논문, p. 180.

67)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p. 214.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sup>68)</sup>

물론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력갱생 또는 민족적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기술적 협력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金日成이 이미 “우리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경제협조와 국제분업을 구실로 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게 얽매려는 대국주의적경향이다.”<sup>69)</sup> 고 말한 것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분쟁으로 자주적 외교를 지향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김일성의 이런 발언은 북한체제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원하지만 兩大社會主義 國家들과의 경제관계가 不公正한 점에 대해 한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金正日은 변화하는 세계체제의 기류를 파악하고 김일성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여 개발도상국을 反帝國主義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볼 수

6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50.

6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9」, p. 310.



68

있다

## 第 VI 章 金正日에 의한 理論的 變化 (3): 社會主義 變革에 대한 對應

### 1. 背景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8년 중국에서의 개혁·개방과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은 북한 지도부에게 세계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은 보다 심각한 차원에서 고민을 느끼게 되었다. 中國은 농업부문에 치중되었던 개혁을 1984년 공산당 12차 3중전회를 계기로 도시기업부문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이들 지역에 무역자주권을 부여한 이래 많은 연해도시들을 개방하였으며,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대외 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sup>70)</sup> 한편 蘇聯은 1988년 6월 19차 당협의회를 기점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社會全般에 걸친 構造的 變革을 시도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 이후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등장함으로써 政治的 多元主義의 기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양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사회주의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차게 하기에 충분했다.

70)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12, 26.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는 북한에게 동반자의 상실에 따른 孤立感과 사회주의체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危機意識을 느끼게 했음에 틀림없다. 북한 사회주의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보여주는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동구체제의 연쇄적 붕괴 논리가 북한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지켜왔던 주체(혹은 자주)의 논리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북한이 주체를 주장할 때 主體의 對象이었던 양대 사회주의체제 즉 소련과 중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개혁·개방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북한의 주체를 손상시킬 존재가 되지 않았다. 즉 주체의 의미가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1980년 말 사회주의의 변혁에 대한 논리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해 민족 개념을 부각하였으며, 1989년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1991년 구소련의 해체에 대한 이론적 대응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공통으로 흐르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매우 防禦的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에 대한 독자적인 논리로서 등장한 자주성의 4가지 원칙이나 수령의 권위를 절대시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각각 실천이념으로서 또는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이념으로 활용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체제의 적응능력의 결여에서 나온 體制守護 이념으로서 대내적 社會結束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

이기 때문이다.

## 2. 變化 內容

### 가. 朝鮮民族第一主義: 民族 概念의 北韓式 適用

김정일은 1989년 당 중앙위에서 한 연설<sup>71)</sup>에서 소위 朝鮮民族第一主義를 제창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 개념을 북한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은 1986년 원래 그가 1986년 7월 15일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sup>72)</sup>라고 말한 것에서 처음 사용되었다.<sup>73)</sup> 여기서 그는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대신에 ‘사회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 대신에 ‘국제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 개념이

7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48~273.

7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56.

73) 그 연원을 내용으로 따지자면 김일성이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논한 것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김정일이 1982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41 참조.

보다 定式化된 것은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일시에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던 1989년 말 김정일이 자체의 힘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보존이라는 논리를 전개한 때부터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들에서 논의되어 왔던 민족 개념을 어떻게 北韓式으로 適用시켰는가? 이를 위해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민족문제에 대해서 논했던 것을 일별해 본 후에 김정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마르크스에 의하면, 民族主義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가 프롤레타리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일시적인 정신적 무기이다. 그것은 虛僞意識의 형태로 대중 속에 침투하며 계급투쟁이 끝나면 민족주의는 아주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전개되었을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즉 폴란드, 헝가리,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운동을 목격한 후 마르크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兩價的인 態度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는 民族 내에서 무엇보다도 政治的 優位를 차지해 그 민족의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비록 부르조아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프롤레타리아는 그 자체가 민족적이라고 말했다.<sup>74)</sup> 다른 한편으로 궁극적인 투쟁의 목표가 계급적 착취를 없

---

74) "The Communist Manifesto," L. S. Feuer,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Garden City: Anchor Books, 1959), p. 26.

에는데 있는 만큼 민족문제는 階級鬭爭 過程에서 하나의 手段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레닌은 민족주의를 통한 革命戰略을 체계화하였다.<sup>75)</sup> 복합 민족국가인 帝政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민족과 타 민족간의 갈등을 목격하였던 레닌은 민족문제(또는 민족주의)에 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짜리즘을 전복시키기 위한 민족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업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反짜리즘 투쟁을 유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들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100여개의 非러시아 민족들의 러시아제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民族自決權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야말로 복수민족국가인 제정러시아를 약화·와해시키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국제제국주의의 와해를 위해 예속민족들의 분리권으로 확대·전개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의 민족자결권의 공식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민족자결권 그 자체를 무조건 존중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留保條項이 있었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에 민족자결의 요구를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볼셰비즘의 민족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

75) 민족문제에 관한 주요한 레닌의 문헌으로는 1903년의 “우리 당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와 1912년과 1913년 사이의 “민족문제에 관한 당적 각서” 및 “민족자결론” 등이다.

것으로서, 민족의 자결이 아니라 각 민족 내의 프롤레타리아의 자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sup>76)</sup> 이 유보조항은 약소 민족들에 대하여 민족국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자유는 민족국가를 형성한 뒤에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보았다.

레닌이 사망하던 당시 소련 공산당 내에서는 그의 민족이론에 대해 중요한 견해차가 없었다. 당 지도부는 세계 각 민족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지배라는 레닌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계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혁명의 성과를 보호하고 해외에 혁명을 파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곧 전개된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그의 理論은 兩分되어 전개되었다. 1924년 말에 트로츠키는 “10월혁명의 교훈”에서 世界革命論(theory of world revolution)을, 그리고 스탈린은 “10월혁명과 러시아 공산주의자의 전술”에서 一國 社會主義論(socialism in one country)을 각각 제시하였다. 트로츠키에 의하면,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등장은 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즉각적인 적의를 불러일으켜 이를 타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혁명을 유럽 자본주의 국가에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도처에서 타도되고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집권해서 러시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후진된 러시아는 선진 공업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지원없이는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76) 金昌順, 「共產主義 民族理論과 政策批判」 (서울: 北韓研究所, 1982), p. 99.

것이다. 이에 반해 트로츠키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스탈린은 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가 타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와 연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트로츠키의 논리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주장이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볼셰비키의 7년 통치가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세계에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회주의를 우선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굳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sup>77)</sup>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민족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적용에 있어서 變化를 경험하는 한편 본질적인 내용은 持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이란 세계사회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민족 개념이 지니는 手段的인 意味를 말하며, 변화란 마르크스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수단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는 반면 민족(또는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민족 개념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이 개념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二重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民族主義를 否定的으로 해석해 왔다. 우선 김일성은 민족주의를 허위의식 또는 부르조아 사상이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부르조아 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이라는 명목

77) 金學俊, 「蘇聯政治論」(서울: 一志社, 1976), pp. 122~126.



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뿐아니라 자기 나라자체의 민족적리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리익에도 배치됩니다.”<sup>78)</sup>라고 말했다. 또한 민족주의는 민족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단결에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내렸던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김정일도 민족주의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해석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워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에서 民族概念을 浮刻시켰다. 그는 민족이 세계사회주의 건설의 단순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체제의 완성된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조선민족(북한)이 이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지를 가진다는 논리로 전개시켰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며 사회주의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시킨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입니다. 인류가 오랜 기

---

78)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당 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 p. 410.

간 리상으로 그려왔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그것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친 사회주의를 으뜸가게 세워놓았다는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량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건설한것으로 하여 더욱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며 그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집니다.<sup>79)</sup>

김정일이 민족 개념을 부각시킨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소련 및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나감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성장이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미국 등이 ‘세계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적없는 문화를 전파해 나가고 다국적 기업을 통해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에서<sup>80)</sup> 김정일의 危機意識을 읽을 수 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애국심을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統一의 道具的 論理로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우리는 전국적판도에서 조선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적혁명역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영예를 힘있게 고무하고 1990년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합니다.<sup>82)</sup>

79)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 257.

80) 위의 논문, p. 250.

81) 禹昌, “朝鮮民族第一主義의 非正合性和 社會變動,” 「北韓學報」, 16집 (1992. 12), p. 15.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은 민족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조선민족의 우수성이 자주성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량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統一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나. 우리식 사회주의: 體制 固守論

社會主義體制的 大變革을 목격하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념적 연원은 그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우리식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찾을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회주의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民族이 하나의 사회주의체제의 중요한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어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없습니다.<sup>82)</sup>

82)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 273.

이렇게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족 개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격한 시점에서 본격 논의되어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서 북한 지도부가 매우 守勢的이고 防禦的인 입장에서 사회주의체제를 辯護하고 있다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대변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원썩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sup>84)</sup>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돌렸다.

그러나 곧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주장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북한 社會主義體制 固守를 위한 論理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85)</sup> 그는 ‘社會主義 挫折’이라는 표현과 함께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

8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43.

84) 위의 논문, p. 336.

85)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담화, 1992년 1월 3일)”과 “사회주의에 대한 웨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 1일)”의 두 가지 문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의 해체 원인을 일일이 분석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일이 지적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 와해의 原因은 다음과 같다.<sup>86)</sup> 첫째는 사상교양을 통한 社會統合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회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을 사회적 소유관계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는 사상의식의 교양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결국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의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다.

둘째는 社會主義의 根本原則을 일관성있게 고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말하는 근본원칙이란 정치·경제적인 사회주의 체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중앙집중식 경제체제, 집단주의, 공산당에 의한 지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김정일이 염두에 있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졌던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체제의 기본 특성인 多元主義의 요소를 불러들였

8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428~437, 457.

다는 점이다. 다원주의는 다당제를 수반하게 되어 공산당의 유일적 지배라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김정일은 파악하였다.

셋째는 동구 및 구소련 사이의 관계는 자주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보다는 상·하 관계 혹은 중앙·주변 관계를 통한 依存的 連繫에 의해 한 체제에서의 변화가 타 체제에 전파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이 행정화 경향, 관료주의, 세도주의라는 社會病幣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갈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서 당이 정권기관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행정을 대행하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였다.

김정일은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체제의 와해 요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소위 ‘內部的 敵’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 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압력,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 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의 상하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이용하여 왔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sup>87)</sup>

말하자면 체제 와해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위자가 필요한데 이는 혁명의 배신자 혹은 변절자라고 불리우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權力 엘리트이고 다른 하나는 知識人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는 이들 사회계층은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체제 붕괴과정에서 決定的인 공헌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회세력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권력 엘리트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합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公的 領域을 侵害하는 행위(흔히는 腐敗라고 일컬어짐)를 저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현물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 혹은 기업소의 관리자가 당관리에게 원자재의 조달 또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해 뇌물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sup>88)</sup> 다른 한

87)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1993. 3); 93. 3. 4 중앙/평양방송 보도 인용.

88) 이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비합법적 목적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농민시장과 같은 합법적 교환기구 외에 지하경제를 통해 생필품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적인 정보교류의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편으로 체제건설 과정에서 지지세력으로 통합되지 않았던 知識人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후기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무기력증을 타파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하나의 抵抗 理念을 창출하는 사회집단이었다.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위해 독자적인 포럼을 형성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마침내 시민사회의 부활 또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권력 엘리트이든 혹은 지식인이든 이들의 이반은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특히 知識人에 대한 統制를 정당화하는 대책을 주장하였다. 대책이란 다름아닌 지식인에 대한 黨的 指導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인 계층이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계급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명한 계급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테리는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때문에 로동계급이나 자본가계급과 같이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인테리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면 혁명의 편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부르조아사상을 가지면 자본가계급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로동자, 농민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어져 나사게 됩니다. ... 인테리를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



시키고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오직 노동계급의 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sup>89)</sup>

김정일의 지식인에 대한 통제는 결국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별도의 사회집단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90)</sup> 이 점에서 그는 지식인의 집단주의 의식과 사회주의 애국심의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敎養 方法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집단주의적 생명관, 애국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직생활 강화, 실천투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sup>91)</sup>

요약컨대,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대변혁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극히 防禦的인 次元에서 전개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수령 중심의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것 외에 상당 부분을 외부 혹은 내부의 적에 의한 사회주의 와해의 요인을 지적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특

8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9월 20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81.

90) 김정일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별로 지식인을 통합하는 순서를 열거한 바 있다. 첫째로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지식인 계층이 노동계급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둘째로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한 다음에는 이들을 교양개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지식인이라는 사회계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논문, p. 293.

91) 위의 논문, p. 295.

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경  
고성 언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第Ⅶ章 結論 및 展望

주체사상은 최고위 권력 엘리트의 지속성 때문에 그 본질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한편,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론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론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이름 아래 이념적 계승성과 창조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질적인 廢棄에 이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김일성에 의한 주체사상의 전개로부터 김정일에 의한 해석 속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실들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은 한국전쟁 직후 파벌간의 권력투쟁과 맞물린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 논쟁 속에서 맹아되었으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반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본격적으로 자주성에 입각한 4가지 지도원칙이 확립되면서 북한의 政策 大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의 주체 개념이 하나의 일관된 이념체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후일 그 기원을 1930년대까지 소급시키는 이유는 민족자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자주성의 4원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공산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實踐 理念이라는 측면에서 사상·정치·경제·군사·대외관계 뿐만 아니라 혁명적 군중노선을 통한 대내적 動員體系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둘째, 주체사상은 1960년대 말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점차 실천 이념으로서의 성격보다도 김일성 중심의 權威構造를 正當化시켜주는 이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점은 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다. 즉 중국이나 소련의 경우 권력 엘리트의 끊임없는 갈등과 함께 실천 이념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던 반면, 북한의 경우는 이것이 일찌기 종식됨으로써 정책선택에 대한 논의가 없어지고 대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권위구조의 정당화 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성격은 김정일이 1973년 후계자로 등장하고 이듬해 金日成主義化를 선언하게 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김정일이 발표하고 당 중앙위가 채택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주체사상의 성격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를 같이 하여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와 김정일의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주체사상의 실천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할 때까지 하나의 體系화된 이념으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체계화란 김일성저작 속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갖가지의 명제들을 하나의 틀 안에 집합시켰다는 의미이다. 주목할 것은 체계화 작업이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의 공식 등장과 때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후계자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넘겨준 다분히 政治的 意圖가 담긴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령 중심의 권위관계를 합리화하는 것과 繼續革命論에서와 같이 그의 권력승계를 혁명의 세대교체로 묘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된 개념들인 自主性和 創造性에 意識性을 덧붙여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서술하는 特殊 概念의 普遍的 概念化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승성을 주장하면서도 그것과의 차별성에 비중이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다섯째,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은 경공업 혁명론을 제기하고 資本主義體制에 대해 레닌주의적 해석에서 탈피한 評價를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결코 북한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관리 방식의 조정(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 및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추진)과 대서방 개방(합영법의 채택)을 실시하였으나 이것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극히 制限的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여섯째, 김정일은 1980년대 말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전후하여 극히 防禦的인 體制守護 論理로서 민족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고 타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기하였다. 朝鮮民族第一

主義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민족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도구적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즉 김정일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사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과 소련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감소된 상황에서 민족이 사회주의체제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김정일은 또한 이것을 사회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논리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개념에 포장된 북한식 통일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의 존속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體制固守와 社會統合의 논리인데, 주목할 것은 체제 붕괴의 원인으로 소위 '내부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권력 엘리트와 知識人의 이반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機能的인 側面에서 주체사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환경 변화 즉 세대교체와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체제의 適應 能力을 대체로 沮害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展望된다. 첫째, 주체사상은 더 이상 미래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제시해 주거나 이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이념으로서 속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신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위구조를 宗教的인 意味로 합리화시키고 김정일의 등장을 계시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合理的인 方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非合理的 要素를 동원하는 것은 체제유지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체제의 변혁 특히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당 중심의

권력구조와 이념체계의 이완이라는 일반적인 必要條件들이 있는데, 공식적 이념체계의 부분에서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이래 개방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사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기치아래 타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념이 강조된 상태에서 추진될 경제정책은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개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교양에 있어서 기계적인 학습 방법에 따른 內面化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주체사상에서 강조되는 신념화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하벨(Vaclav Havel)의 다음과 같은 야채가게 주인의 비유처럼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에 자신을 일체화시킴으로써 社會的 存在로서 認定받고 소외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채가게 주인이 양파와 당근 사이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써붙였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무엇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실제로 그가 개인적으로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이란 생각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까? 너무 열광한 나머지 자신의 이상을 군중에게 알릴 수 밖에 없는 욕구를 느낀 것일까? 어떤 식으로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게 될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

야채가게 주인은 슬로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가 진열

장에 내건 이유는 슬로건에 나타난 어떤 이상이나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그의 행동에 아무런 동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 슬로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슬로건은 하나의 신호이며 비록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 야채가게 주인 아무개는 여기 있으며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내게 바라는 것을 나는 행한다. 나를 믿어도 좋다.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나는 복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썽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sup>92)</sup>

이 비유처럼 주체사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儀禮的인 (ritual) 행동을 명분있는 것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측면에서 극히 消極的인 의미에서 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주체사상이 단독으로 체제의 존속과 해체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 중심 체제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체사상이 점차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점차 이탈하면서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주장 외에도 ‘민족’ 또는 ‘우리식’ 등의 개념에 비중을 두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그것의 展開 樣相 (특히 對南戰術의 측면에서)을 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체의 개혁·개방에 여념이 없고 구소련이 해체된 상태에서 북한의

---

92) Vaclav Havel,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New York: M. E. Sharpe, 1992), pp. 27~28.



주체사상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제기되었던 자주성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를 주장하게 할 만한 구실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① 1993년 4월 7일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한 것, ② 동년 10월 2일 「檀君陵 發掘 報告」를 통해 단군이 실재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 ③ 동년 12월 9일 제9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을 강조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김정일의 朝鮮民族第一主義라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북한의 위기의식을 민족사의 부각을 통해 보상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해 민족의 同一體 意識을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하나의 대남전술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주체사상은 앞으로도 민족 개념으로 포장된 修辭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0.

\_\_\_\_\_.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高性俊 外. 「轉換期の北韓社會主義」. 서울: 大旺社, 1993.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 평양: 평양출판사, 1989.

金甲喆 · 高性俊. 「主體思想과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 서울: 한울, 1987.

金昌順. 「共產主義 民族理論과 政策批判」. 서울:北韓研究所, 1982.

金學俊. 「蘇聯政治論」. 서울: 一志社, 1976.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서울: 기독교문사, 1990.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 朴彩鎔. 「北韓의 主體思想과 統一政策」. 서울: 文佑社, 1991.
- 스칼라피노 · 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서울: 돌베개, 1983.
- 申相振. 「中國의 改革 · 開放 現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연구」. 서울: 나남, 1993.
- 延河淸.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6.
- 尹炳益. 「北韓의 主體思想」. 서울: 統一研修院, 1989.
- 李溫竹.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法文社, 1993.
- 이찬행. 「북한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 서울: 두리, 1993.
-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鄭鎭渭. 「北方三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김정일선집 1(1964 - 1969)」.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2.
- \_\_\_\_\_. 「김정일선집 2(1970 - 1972)」.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3.
- 卓珍·金剛一·朴弘濟. 「김정일지도자 2」. 東京: 東邦社, 1984.
- 통일원 편. 「김정일우상화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서울: 통일원, 1993.
- 하수도 저, 한백린 역. 「김일성사상비판: 유물론과 주체사상」. 서  
울: 백두, 1988.
-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 서울: 원일정보, 1989.
-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 Christman, Henry M. ed. *Essential Works of Lenin*. New York: Dover, 1966.
- Gardner, John.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1982.
-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Shlapentokh, Vladimir.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Tismaneanu, Vladimir.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 2. 論文

- 강혜련.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지도이론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 (1990. 5).
- 高有煥. “김정일의 주체사상.” 「안보연구」, 33호 (1993).
- 金甲喆. “主體思想叢書.” 「國際政治論叢」, 30집 1호 (1990).
- 金南植. “北韓과 中共의 體制發展比較研究.” 「國際政治論叢」, 24집 2호 (1984).

-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993. 3).
- 박승덕.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편.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白秉勳. “주체사상의 非金日成化 가능성에 관한 試論的 研究: 中國의 역사적 경험과 北韓의 선택.” 「北韓研究」, (1993 여름).
- 禹昌.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비정합성과 사회변동.” 「북한연구」, 16집 (1992. 12).
- 李鐘奭.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 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 “자주성을 옹호하자.” 金俊燁 外 共編. 「北韓研究資料集 7」.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1.
-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요인.” 「철학연구」, (1993. 2).
- Engels, Friedrich.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in Tucker, Robert C. ed.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 W. Norton Company, 1972.
- Havel, Vaclav.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Havel, Vaclav. ed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New York: M. E. Sharpe, 1992.
- Johnson, Chal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 Cha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Kim, Joungwon Alexander. "The Peak of Socialism in North Korea: The Five and Seven Year Plans." *Asian Survey*. vol. 5, no. 5 (May 1965).

Lee, Hy-Sang.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 Arlington, Virginia. July 12-14, 1991.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Greenstein, Fred and Polsby, Nelson. eds. *Macropolitical Theory*. vol. 3 of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Marx, Karl. "The Communist Manifesto." Feuer, L. S.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Garden City: Anchor Books, 1959.

### 3. 其他

「内外通信」. 1993. 10. 28.

「사회주의헌법」. 1972.

「사회주의헌법」. 199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3 統一費用 研究(I)
- 93-14 베트남 綜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研究報告書 93-18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

---